건강정보

건강통계

의료기관정보

알림정보

소개마당

) ( 수정·문의 ) ( ♣ ) ( ♣ )

건강담기

Į.

건강정보 ▼ > 건강정보 ▼



# 항문직장농양과 치루(치루)

개요 ▼ ■ 등록일자: 2020-04-11 ■ 업데이트: 2023-05-23 ■ 조회: 11448 ■ 정보신청: 100

### 개유

치루는 한자어로 '치'(痔)라는 말은 '항문의 병'이라는 뜻이며 '루'(漏) 라는 말은 '새다, 틈이 나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치루'라는 말은 '항문 옆으로 샛길이 생기는 병'을 의미합니다.

지루는 육아조직으로 구성된 가느다란 섬유성 관으로, 항문의 내부에 위치한 항문샘 쪽으로 연린 구멍을 '내공(內孔)'이라고 하고, 항문주위 피부 쪽으로 열린 구멍을 '외공(外孔)'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치루는 하나의 내공만을 가지는데 반해 외공은 한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루 환자의 대부분은 수개월 내지 수년간 항문 주위에 반복해서 농양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왔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당수가 과거 한번 이상 농양이나 치루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개요-종류

치루는 일반적으로 항문 앞쪽에 외공이 있는 경우 누관은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항문선와에 내공을 가지고 있으며, 항문 뒤쪽에 외공이 있는 경우 누관은 항문 후방 가운데로 돌아 들어가 항문 뒤쪽 가운데 항문선와에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공이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복잡한 형태의 누관을 가진 복잡한 치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루의 종류는 외괄약근과 누관의 상관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1) 괄약근간형: 누관이 내괄약근과 외괄약근 사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의 치루.
- 2) 괄약근관통형: 누관이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을 관통하는 경우.
- 3) 괄약근상(上)형: 누관이 괄약근 위쪽을 돌아나가는 경우.
- 4) 괄약근외(外)형: 누관이 괄약근을 밖에서 통과하는 경우. 괄약근관통형에서 염증이 위로 올라가서 직장 내로 터지면서 발생하거나 결장게실염, 크론병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그림. 치루의 분류〉

# 개요-원인

항문직장농양이 피부 쪽으로 저절로 터져 나오거나 절개배농 후 염증이 시작된 항문샘과 통로가 생기면 치루가 발생하는데, 항문직장농양이 발생한 모든 환자가 치루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환자의 약 70%, 절개배농을 실시한 환자의 약 25~50% 정도에서만 치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절개배농 수술 후 치루 발생 가능성은 항문직장농양의 위치와 모양, 심한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치료를 잘 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증상

치루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문 주위가 반복적으로 붓고 아프며 고름이 잡힌다.
- 항문 주변에 볼록 튀어나온 구멍(외공)이 만져진다.
- 외공을 통해 분비물이나 고름, 가스 등이 나온다.

# 진단 및 검사

치루는 항문직장농양을 앓은 병력, 반복적인 항문 주위 통증과 염증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있으며, 항문 주위의 외공은 눈으로 확인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환자의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보면 오목하게 만져지는 내공을 확인할 수도 있고, 누관이 딱딱한 코드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루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항문경 검사 또는 직장경 검사 : 항문이나 직장검사에 사용되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내공을 확인하거나 내공에서 고름이 밀려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2) 항문초음파 검사 : 항문을 통해 초음파기구를 삽입하여 내공의 위치, 누관의 경로, 괄약근의 손상여부, 농양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누관조영술 : X-선을 투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방사선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누관의 경로와 내공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재발한 치루나 복잡한 형태의 치루진단에 사용됩니다.

4)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술 :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복잡한 치루에서 내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5) 괄약근 기능 검사 : 복잡치루는 질병 자체 또는 수술로 인해 괄약근 기능이 손상되어 변을 잘 참지 못하거나 변을 지리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술에 앞서 괄약근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괄약근 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약물 치료

치루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며 괄약근간면에 있는 1차 병소를 제거하고 1차 및 2차 누관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부위마취 후 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하루 또는 수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치루의 수술은 치루의 형태와 심한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1. 단순치루(괄약근간형)

내공과 외공 사이의 누관에 가는 탐침을 넣은 후 괄약근을 포함하여 치루를 절개하는 누관절개술을 사용합니다. 수술 후 좌욕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 상처주위에 새 살이 차오르며 상처가 저절로 아물게 됩니다. 누관절개술 대신 누관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누관의 전조직을 절제하고 개방하는 방법으로 치루의 치료에 있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누관절개술에 비해 수술 후 창상이 커져 치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괄약근의 손상가능성으로 인해 변실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복잡치루(괄약근관통형/괄약근상형/괄약근외형)

복잡치루의 수술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치루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치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 자체는 간단할 수 있으나, 항문 괄약근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수술 후 배변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항문 괄약근 손상을 방지하려고 하면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이 높아 복잡치루의 수술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합병증과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수술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에 모든 수술을 끝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 대상별 맞춤 정보

#### 1. 결핵성 치루

지루의 5~10%는 결핵균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폐결핵을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치료는 다른 신체부위에 활동성 결핵병변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수술할 수 있으며, 폐 등 다른 신체 부위에 활동성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2~3개월 동안 항결핵제를 먼저 투여한 후 수술을 시행합니다.수술 방법 자체는 일반 치루와 동일하지만 결핵성 치루는 치유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대개 수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 까지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 2. 소아의 항문직장농양과 치루

소아 항문직장농양은 거의 대부분 남자아이에서 발생하며,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 3. 크론병과 치루

크론병 환자의 여러 종류의 항문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치루이고 크론병 환자에서 28~80%의 빈도로 진단됩니다.직장염이 없는 단순치루에서는 치루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복잡치루 또는 직장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도 커지고 치료 방법 또한 복잡해집니다.직장염이 없는 경우 단순치루에서는 치루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복잡치루에서는 일부 선택적인 경우에 한하여 괄약근보존술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로 치루가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항종양괴사인자 제제인 인플릭시맙은 누관을 폐쇄하는 효과를 인정받고 있고 치유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 관련 건강정보

<u>항문직장농양과 치루</u> <u>항문직장농양과 치루(항문직장농양)</u>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안내 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

[ 2815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문의사항: 02-2030-6602 (평일 9:00-17:00, 12:00-13:00 제외) / 관리자 이메일 : nhis@korea.kr COPYRIGHT @ 2024 질병관리청. ALL RIGHT RESERVED

해외기관

유관기관

정부기관

